

외국인 관련단체 ②

송우리문화센터- 대표 정승진 목사

시유지 賃貸料 문제 해결 시급

방글라데시·베트남·러시아 勤勞者들의 쉼터

송우리문화센터는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06-1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방글라데시, 베트남, 러시아(RIS) 3국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쉼터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쉼터로 활용하고 있던 건물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시에서 철거하여 일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겨울나기가 고통스러운 실정이다.

송우리문화센터 정승진 목사는 "포천시 소재 3D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 복지 차원에서의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지역사회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목사는 현재 시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자가상승으로 임대료로 함께 올라 1년에 600만원 하던 임대료가 1천800만원으로 세배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어려워 가뜰이나 힘든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은 쉼터운영을 어렵게 한데다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하여 올 겨울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난

로에 가스가 없어 2시간을 추위에 떨며 인터를 해야 했다.

송우리문화센터에는 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보교환의 물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3개국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함께 방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만 함께 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송우리문화센터는 1996년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파견돼 있던 이석봉 목사가 귀국하면서 설립했으며 정승진 목사를 대표목사로 방글라데시(정승진 목사), 러시아(은성식 목사), 베트남(안정호 목사) 3개의 공동체로 구성돼 있다.

송우리문화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알선과 임금 체불, 불법체류와 연수생들의 처우문제 해결, 한국 문화 적응, 산재도우미, 생활문제 처리 등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포천시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 받은 적이 없다. 포천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축제를 3천만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수립했다. 이처럼 추위에 떨며 직장을

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스비나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아쉬운 현실이다.

컨테이너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송우리문화센터 앞에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불법이 아니라서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송우리문화센터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만 불법인가? 라는 불만이 꼬리를 물고 있다. 포천시의 애정어린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목사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더 편안하게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정 목사는 "문화센터를 찾는 베트남, 러시아,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일하는 문화 때문에 겪는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며 "대표적인 예로 시간외 작업의 경우 한국인들은 남아서 처리하는 것을 당연시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의사소통으로 인해 겪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센터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열고 있다.

베트남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안정호 목사가, 러시아는 매주 일요일 낮 11시부터 12시까지 러시아어 자원봉사자인 이재욱 씨의 지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강좌를 열고 있다.

정 목사는 "앞으로 송우리문화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천 뿐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총체적 총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의정부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설립된다면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시유지이며 임대료 문제가 걸림돌이다. 송우리의 경우 시가지화가 되어 갈수록 자가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임대료 또한 인상

될 것이 명약관화 하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요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특히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포천시 중소기업체의 가동능을 함께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을 인정하여 송우리문화센터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여 외국인근로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건설에 앞장서 나가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완전한 약국=웃음



이보용

본지 지음위원

1964년, 미국의 <토요 리뷰(Saturday Review)> 편집장이던 노만 카스스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다.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 몸이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

50세의 노만 카스스는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을 두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어느 날 그는 책의 한 구절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다.

'부정적인 정서는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생각은 살균작용을 한다.' 그 날부터 그는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올 만한 책과 텔레비전 프로는 일절 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대신 그는 희망적인 책들을 읽고, 코미디 프로를 보며 크게 웃고, 즐거운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다. 놀랍게도 많이 웃을수록 통증이 사라졌다. 통증이 사라지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굵어버린 손가락 하나가 퍼져 있었다.

그는 어쩌면 웃음이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조건 웃었다. 그로부터 1년 뒤 기적처럼 병이 완치됐다. 그는 너무나 신기해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 웃음으로 병을 이겨낸 자신을 연구 해 볼 것을 제안했다.

처음에 교수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그의 거듭되는 부탁에 연구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이 크게 한 번 웃을 때 마약처럼 환기가 풀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혈액 순환이 잘되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병에서 나을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그 자신도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하며 웃음에 대한 논문을 발표,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75세까지 UCLA대학에서 강의하며 웃음 치료를 위해 일생을 바친 그는 웃음학의 창시자였다.

"우리 몸에는 완전한 약국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웃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 비웃음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 011-342-5834)

'훈련의 열기로 혹한을 이긴다'

육군 제8보병사단, 혹한기 야외전술훈련 실시



취임후 처음으로 이천부대 훈련현장을 방문한 육군참모총장(박홍렬 대장)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혹한기 야외전술훈련에 여념이 없는 육군 제 8보병사단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동계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혹한기 훈련으로 장병들은 싸워 이기는 부대의 위용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육군8사단은 1월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포천·철원지역 일대에서 대규모 혹한기 야외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혹한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동계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훈련은 1월15일 새벽, 상황조성을 시작으로 주둔지에서 전투준비태세와 작전지역 일대에서의 방어·역습·공격작전·전투근무지원 훈련 등으로 실시됐다.

특히, 부대는 2개 전투단을 편성한 쌍방 기동훈련과 개인별 30kg의 완전군장을 메고 30km 이상의 지속행군을 통한 강도 높은 훈련을 펼쳐 정해년도 중부전선을 확고히 지키고자하는 강한 육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훈련부대는 '추위와의 전쟁'이라는 혹한기 훈련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훈련 돌입 전부터 장병들에게 혹한을 극복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기술과 마음이 집을 철저히 교육시켰다.

또한, 부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장병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계획적인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초체력과 내한 적응 능력을 배양해 왔으며, 동계전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혹한기 전술훈련을 보장했다. 한편, 육군참모총장(박홍렬 대장)은 1월18일, 혹한기 전술훈련장을 방문하여 훈련부대 지휘관으로부터 훈련 상황을 보고 받고 혹한의 추위를 극복하고 말은 입부와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미약투약 혐의자 전봇대 뛰어내려 숨져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40대 후반 A모씨가 1월18일 12시 30분경 경찰에 쫓기다가 15m 전봇대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모씨는 남양주 소재 자신의 집에 11시10분경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A모씨는 20km를 달아난 끝에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 도로변에 있는 높이 15m 전봇대에 올라가 경찰과 대치하다가 뛰어내려 인근 포천의료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A모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승합차로 도주를 막았으나 A모씨는 경찰차량을 피해 남양주에서 포천 일동방향으로 도주했고 긴급 출동한 순찰차 2대로 경찰이 추격하기 시작했다.

일동 가산리에 이르러 A모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30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면서 횡설수설 하다가 15m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1월의 독립운동가

국민계몽의 독립운동 임치정 선생



평남 용강에서 태어나 1903년 노동이민으로 하와이 오하후섬 사탕수수농장에서 생활하면서 근대적 사고와 민족의식을 키웠다. 1904년 감리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뒤 근대 학문을 수학할 목적으로 미국 본토로 건너갔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 수학하면서 안창호가 설립한 상황친목회에 가입하여 한인동포의 의식개혁과 공동체 형성에 힘썼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가 한국 침략과 해외 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공립협회를 조직하여 맞섰다. 나아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공립신보를 발행하여 국내의 한인들의 민족독립 의지를 고취하며 국민회복운동을 전개하여 갔다.

특히 국내의 한인들의 국민회복운동을 결집할 목적으로 '대한신민회'를 발기하고, 안창호를 국내로 파견하여 신민회 결성을 꾀했다. 신민회가 결성되자 귀국하여 신민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교육계몽운동은 물론 의열투쟁 등 국민회복운동을 펼쳤다.

경술국치를 전후해서는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해외의 독립군 기지 개척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피체되어 1911년 옥고를 치렀고, 출옥하자마자 1912년 테라우치총독 암살 음모 조작 사건으로 재차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남포 3·1운동 주도, 임시정부 연통제 산하 진남포 참사, 1920년대 민립대학설립운동 및 언론활동 등을 통해 독립정신을 지속적으로 표출한 선생의 독립운동 공훈과 서거 75주기를 기리어 선정됐다.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 산 품 목

-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 낙시용품 포장지류

가 공 제 품

- 스탠딩삼방, M자가공,
-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 도

-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조식식품
-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